

삼성-LG, 2004년 유기EL 경쟁 한판

LCD · PDP에 이은 Display 주도권 다툼 ... 삼성전자도 연구개발 참여

국내 전자업체의 전통적 맞수인 삼성과 LG가 TFT-LCD와 PDP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유기EL에서도 2004년부터 또다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친다.

이에 따라 유기EL 관련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화학업체에도 수요 및 시장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이 일고 있다.

LG전자는 2004년부터 유기EL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구미에 유기EL 양산을 위한 2기 라인을 확보했다고 1월6일 밝혔다.

개발용 1기에 이어 400억원이 투입된 2기 라인은 월 30만~40만대의 유기EL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최근 들어 수율(양품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2004년 상반기에 휴대전화용 256컬러 수동형(PM) 유기EL을 출시하고 6만5000컬러 제품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유기EL은 전기를 흘려주면 스스로 발광하는 유기물질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TFT-LCD에 비해 시야각이 넓고 전력 소모량이 적으며 응답 속도가 빠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한발 앞서 유기EL 사업에 뛰어든 삼성SDI는 2003년 1000억원을 투자하며 세계 최초의 6만5000컬러 PM 유기EL과 세계 최고해상도의 휴대전화 내부창용 능동형(AM) 유기EL을 개발한 여세를 몰아 2004년에도 AM 유기EL과 대형 유기EL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도 대형 유기EL 부문에서는 그룹 차원의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어서 “3파전 아닌 3파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평판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LG-삼성 공방은 2004년에도 뜨겁게 진행된다.

먼저 LCD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천안공장의 5세대 6라인 건설과 충남 아산 탕정읍 LCD 복합단지 건설에 지난해 2조8300억원보다 약 17% 정도 늘어난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추산된다.

LG전자의 자회사인 LG필립스LCD 역시 구미 공장에 건설중인 6세대 라인에 2004년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7월께 공장을 완공하고 4/4분기부터 제품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2/4분기부터는 파주 LCD단지 터파기 공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PDP 부문에서는 삼성SDI가 PDP 3라인 건설을 위해 2004년 5830억원을 투자하고 1, 2라인을 포함해 월 최대 25만대(42인치 기준)의 생산이 가능한 세계최대의 PDP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LG전자 2004년 7월께 PDP 3라인을 준공해 월 최대 14만대의 PDP를 생산할 예정인 가운데 공장 내 핵심 설비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총 투자액 3300억원의 상당 부분이 2004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LCD, PDP, 유기EL 모두 새로운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떠오른 부문인 만큼 삼성과 LG의 경쟁은 당연한 흐름이며, LCD와 PDP와 같이 유기EL 부문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수준의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1/07>